

신체이미지와 교복변형행동 연구: 여고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School Uniform Reforming Behavior in Relation to Body Image:
In the Case of High School Girls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위 은 하
제주 한림여자중학교
교 사 권 유 민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Eun-Hah Wee
Jeju Hanlim Girl's Middle School
Teacher : Yu-Min Kw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uniform reforming behavior in high school girls is related to body image distortion, and to obtain objective data to help in guiding students in the wearing of uniforms at school. 661 freshmen and junior girls at six high schools in Kwangju city responded to questionnaires. The data was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s using the SPSS 12.0 program. According to their body satisfaction level, three groups (haggard distortion, normal, overweight distortion) were identified. The data showed that a few high school girls were unable to recognize their body types correctly. It also indicated that school uniform reforming behaviors in high school girls were not related to their body image or body satisfaction level. So, it seems that students need guidance in the building up of an objective body image and wearing uniforms to fit their body types.

주제어(Key Words) : 교복변형(school uniform reforming), 신체이미지(body image), 여고생(high school girls), 신체만족도(body satisfaction level)

Corresponding Author : Eun-Hah We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2523 Fax: +82-62-530-2529 E-mail: weh@jnu.ac.kr

* 이 논문은 2007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의복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전 생애를 통해서 중요하게 나타나며 특히 발달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의복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성장급등과 2차 성징의 발현으로 신체의 상이 급격히 변화되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새로운 자아상의 확립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한준상, 이춘화, 유옥경, 2000).

이러한 성장의 과도기적 특징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쉽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때문에 청소년기의 발달을 변화하는 신체와 변화하는 자아의 시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의복과 외모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며, 의복과 신체적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주로 유행이나 디자인 등에 관심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관리성, 안락성 등을 중요시하게 된다(이상희, 정현식, 손원교, 1997).

실제로 청소년들은 신체변화에 극도로 민감하여 신체 성장이 자기와 비슷한 연령이나 같은 지위에 있는 동년배들과 병행하지 못할 때 심각한 고민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관리나 의복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동년배 집단과 동일시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노력한다.

한편,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교복을 착용하고 시간을 보내므로 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복의 종류는 바로 교복이다. 각 학교의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에의 소속감과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한국일보, 2001.5.9).

따라서 획일화된 교복은 청소년들의 의복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교복에 대한 만족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교복변형이라는 독특한 의복행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행하는 교복 변형의 유형은 몸에 꼭 밀착되게 하거나, 상의와 하의의 길이를 모두 줄이는 것이다. 교복 시장 또한 청소년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몸에 밀착되는 형태로 의복구성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교복변형의 추세는 학교규율과 상반되는 행위이므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를 일탈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한 생활지도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복 변형 행동을

비행행동의 하나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다(고애란, 김양진, 심정은, 1999).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아정체감과 신체 자아상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 동조하고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의복스타일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므로(황진숙, 안명화, 용유진, 유승연, 2002) 이를 일률적인 일탈행위로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무조건 교복 변형 행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여 평소에 올바른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의복지도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의 교복 변형 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의복 관심도에 관한 연구(빈주은, 1999; 이상희 외, 1997), 청소년의 교복 만족도에 대한 연구(김혜정, 2001; 이소은, 2001; 이애경, 한영숙, 이혜자, 2006), 청소년의 교복 변형유형 대한 연구(노지영 외, 1999; 이혜경, 1999) 등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교복변형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체형변화는 의복을 비롯한 외모관리 행동과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체적 자아상의 발달이 청소년의 주요 의복인 교복에 미치는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 중 신체이미지의 확립여부와 교복 변형 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서 교복 변형 행동의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체형을 의식한 외모관리와 의복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학생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교복관련 생활 지도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교복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 있어 올바른 옷차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복가치관을 확립하고, 기술·가정교과의 의생활관련 단원에서 응용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body image)란 신체적 자아 즉, 신체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인 상(mental image)으로서 자아개념의 핵심 요소이다(Rudd & Lennon, 2000). 현대사회에서 신체이미지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개인의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심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 가치, 목표, 성격 등에 대한 타인의 견해 등을 고려하게 되면서 개인이 신체에 가지는 내

적태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게 되었다(박지현, 2007). 따라서 신체적 자아상은 고정되어 있기보다 사회화, 유행, 동료집단,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아개념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체이미지는 크게 지각적(감정적) 신체이미지와 태도적(인지적/행동적) 신체이미지의 2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지각적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 가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태도적인 신체이미지, 신체변형장애, 우울증, 섭식장애 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Cash, 1990). 지각적 신체이미지의 왜곡 현상은 병리적인 측면과 관련이 깊은데, 지나치게 되면 신체의 작은 결점에 집착하고 걱정하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마르고 큰 키의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김에 따라 자신을 실제보다도 더 뚱뚱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이미숙, 2000). 위은하(2006)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신체를 왜곡되게 인식하며 관심이 집중되는 부위도 다르다고 하였다. 지각적 신체이미지 왜곡현상은 신체 변형장애와 섭식장애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다. 이 중에서도 섭식장애는 제 2의 성장급등기로서 중요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각적 신체이미지의 왜곡현상이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가 된다.

태도적 신체이미지만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갖는 느낌, 평가, 행위 등을 의미한다.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전체적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신체만족도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지각적 신체이미지와 달리 병리적 결과보다는 신체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신건강 측면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송경자(1999)의 연구를 통해 살펴본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준거집단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인식되게 된다. 이때 준거집단의 이상적 기준과 현실속의 자기가 다르게 지각될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차이지각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감정을 포함하게 되므로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다. 자신의 신체를 비롯한 외모에 만족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긍정적 느낌을 가지고, 역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신체에 대해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바 있다(이상진, 정옥분, 1999).

일반적으로 전체 신체만족도는 성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2001년 서울의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한국청소년 개발원의 신체만족도 조사에서 남자 청소년은 3.23의 신체만족도를 여자청소년은 2.96으로 여자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근육과 같은 신체의 기능향상에 집중하는 반면 여학생은 외형적 신체변화에 민감하며 타인에게 보여 지는 공적 자아에 대한 관심이 남학생보다 높기 때문에 대체로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또 다른 이유는 마른 것이 날씬하다고 믿게 만드는 사회화된 압력에 의해서이다. 청소년기는 사회참여에 필요한 가치, 태도,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크게 매스미디어, 부모, 또래집단, 학교 등 4가지 사회화 요인을 통하여 신체이미지의 사회적 이상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 한다(Moschis, 1987). 그 중에서도 대중매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성영신, 박은아, 우석봉, 1999; Thompson, 1990). 즉 현대 사회의 매스미디어는 특정 신체이미지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비교를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차이지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2. 청소년의 교복변형행동

우리나라에서는 1886년 이화학당이 서양 선교사에 의해 다홍색 치마저고리로 된 한복 교복을 입은 것을 효시로 교복 착용이 시작되었다(정추량, 1967). 현재에는 91%에 이르는 중등학교에서 교복착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교복 착용의 목적은 청소년기에 고조되는 필요 이상의 의복관심도를 막고, 착용자 자신이 학생 신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속감과 공동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의복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간 빈부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과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인자, 1992).

반면 활동성과 관리면에서 불편하고 멋과 개성을 살리기 어려운 의복이라는 점에서 단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박영애(1997)의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소재나 디자인으로 인하여 착용자가 자신의 교복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며, 활동적이고 심미적인 교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청소년기에 교복이 마음

이 들지 않고 편안하지 못할 경우 교복에 대한 불만이 클 것이며, 나아가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박영애, 1997). 최근 교복을 수선하여 입는 교복변형 행동도 교복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들이 교복을 통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심미적 교복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혜주(2006), 이상희 외(1997), 이에경 외(2006)의 교복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교복만족도는 대체로 낮게 조사되었다.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에 대한 이상희, 김현식 등(1997)의 조사에서도 정숙성과 개성, 유행에 관심이 적고 동조성에 관심이 많을수록 교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정하고, 집단에의 소속감 기능이 학생 신분을 잘 표현해주지만 개성표현과 유행하는 디자인은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의복은 신체이미지를 대변하고 신체이미지의 불만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 의복은 단지 아름다움의 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받고 신체만족도를 향상시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청소년기에 심미적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의복의 착용과 선택이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성을 띠는 의복은 하루 중 대다수의 시간동안 착용하고 지내는 교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교복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과 같은 의복의 순기능에 일조하지 못하고 단체복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교복의 불만족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디자인이 유행에 뒤떨어진다' 등 디자인 면에서 불만족이 크게 지적되었다(유경숙, 1992). 최근 교복 불만족에 의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교복변형행동도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의 선호와 관련성이 있었으며 단정하고 지적인 이미지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황진숙 외, 2002). 그 외에도 교복이 미적 감각 및 개성이 결여되어 있고 활동성도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활동성과 교복 디자인의 심미성 측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요구는 질기거나 때가 타지 않는 것보다 각 학교의 교육 특색을 잘 나타내주고, 학생들이 우아한 기품과 자신감 그리고 영예로움을 표현해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고, 교복이 단정한 이미지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겸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교복변형행동은 의복관심도의 반영으로 의복관심도의 하

위 영역인 외모, 개성, 상표지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복변형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에경 외, 2006). 이혜경의 연구(1999)에서도 교복변형 태도가 전반적으로 교복만족도보다 의복관심도와 상관관계가 크며 그 중에서도 개성과 동조, 외모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복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품위 및 안락감이 교복변형과 정적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교복이 주는 품위와 안락감이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체형결점을 감출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복변형의 유형은 하의의 길이와 폭을 줄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의의 품과 길이 순으로 많았다. 교복변형의 유형은 연구지역과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하의 교복에 대한 변형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신체만족도면에서 하의의 신체불만을 표현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교복변형의 정도나 빈도에 관계없이 교복변형을 한 청소년이 52.7%(이혜경, 1999), 58.1%(이에경 외, 2006)로 과반수를 넘는 편이었으며, 교복변형의 기준은 타이트하게 몸에 밀착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복변형의 기준은 타이트한 복고형처럼 기성세대의 패션 컨셉을 차용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혜경, 김세희, 2004).

이처럼 교복변형을 교칙위반 문제로 치부하여 이루어지는 현재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신체발달상과 교복행동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지나친 교복변형행동이 인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인지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교복착용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체형의 식과 체중조절행동으로 자아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교복변형 행동도 일반 의복행동에서와 같이 신체이미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체이미지와 교복변형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들의 교복변형행동이 지각적(감정적) 신체이미지의 왜곡현상 및 태도적 신체이미지인 신체만족도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여고생들의 올바른 교복착용을 위한 생활지도와 기술·가정 교과과의 의복관련 단원의 지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여고생의 지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왜곡여부를 알아본다.
- 둘째, 여고생의 지각적 신체이미지의 왜곡에 따른 교복변형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 셋째, 여고생의 태도적 신체이미지인 신체만족도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유형을 분류한다.
- 넷째, 여고생의 태도적 신체이미지인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른 교복변형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여고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디자인 변형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광주광역시 소재의 고등학교 6개교의 1, 2학년 학생 676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2007년 4월 D 고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한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5월 25일~6월 20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부실 기재된 질문지 15부를 제외한 66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여고생의 신장과 체중, 그리고 체질량지수(BMI)를 통해 일반적인 신체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인 표준체격(사이즈 코리아, 2007. 09. 15)과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조사 대상자인 여고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표 1>과 같이 각각 160.29cm와 54.87kg으로 한국인 표준 체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 집단의 신장과 체중은 표준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신체비만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집단의 평균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한 결과 21.31로 조사대상의 비만정도는 평균적으로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자와 한국인의 표준체격 비교

	본연구		Size korea	
	M	SD	M	SD
신장(cm)	160.29	5.17	160.26	4.91
체중(kg)	54.87	8.71	55.28	7.89
BMI	21.31	3.31	21.59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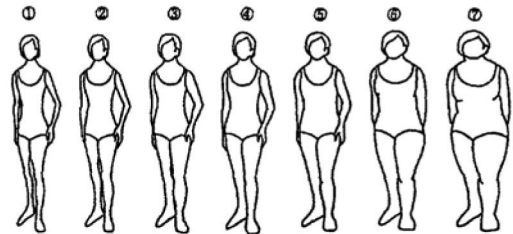
BMI : Body Mass Index, = 체중(kg)/신장(m²)

3. 조사도구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신체측정을 위한 신장과 체중측정 2문항, 주관적 신체이미지 측정 1문항, 신체만족도 22문항, 교복변형행동관련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관적인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왜소한 체형” “마른체형” “약간 마른체형” “보통” “통통한 체형” “살찐체형” “비만체형”으로 표현되는 남녀 중·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 측정도구 그림을 사용하여 자신의 체형이라고 생각되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그림 1.). 체형별 신체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림은 총 7가지 체형으로 분류되며, 정상체형 4를 기준으로 하여 1은 가장 마른 저체중군, 7은 고도 비만형을 나타낸다.

객관적 신체이미지는 신장과 체중을 고려한 BMI(Body Mass Index) = 체중/(신장)²을 이용하였다. “저체중”은 체질량지수(BMI)가 18.5 이하, 정상범위는 18.6~22.9, “과체중”은 23~24.9, “중도비만”은 25~29.9, “고도 비만”은 30 이상을 기준으로 5집단을 분류하였다(사이즈 코리아, 2007. 09. 15).



<그림 1> 주관적 신체이미지측정 도구 그림

태도적 신체이미지인 신체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각 신체부위의 22곳(<표 9>)의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교복변형행동관련 문항은 교복변형에 대한 인식, 경험, 변형목적, 변형부위 수를 묻는 명목적 문항과 교복변형 부위별 변형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5점 리커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행연구(고애란 외, 1999; 정현주, 목혜은, 한유정, 2002)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설문 자료는 SPSS WIN 12.0(Kr)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내용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의 주관적, 객관적 신체이미지 및 지각적 신체이미지 왜곡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여고생의 신체이미지 왜곡집단별 교복변형의 인식 및 경험, 변형목적, 변형부위 수와 변형부위 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x²-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한 뒤 사후검정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표 2〉 주관적 신체이미지와 BMI의 빈도분석

명(%)

주관적 신체 이미지						계
	왜소한체형	마른체형	보통	살찐체형	비만체형	
BMI						
저체중	9(1.4)	25(3.8)	18(2.7)	2(0.3)	0(0.0)	54(8.2)
정상체중	9(1.4)	42(6.4)	453(68.4)	35(5.3)	5(0.8)	544(82.3)
중도비만	0(0.0)	0(0.0)	12(1.8)	34(5.2)	14(2.1)	60(9.0)
비만	0(0.0)	0(0.0)	0(0.0)	0(0.0)	3(0.5)	3(0.5)
계	18(2.7)	67(10.1)	483(73.1)	71(10.8)	22(3.3)	661(100.0)

*음영처리 부분 :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신체이미지와 객관적 신체이미지가 일치함을 의미

셋째, 여고생의 신체만족도 요인과 군집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k-평균군집분석을 실행하였다.

넷째, 여고생의 신체만족도 군집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 변형부위 수와 변형부위, 변형 후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한 뒤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여고생의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분류

여고생의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관적 신체이미지와 객관적 신체이미지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주관적 신체이미지와 객관적 신체이미지인 체질량지수(BMI)의 분류가 일치하는 집단을 정상인식 집단, 체질량지수(BMI)보다 주관적 신체이미지를 작게 지각하고 있는 집단을 수척왜곡집단, 반대로 크게 지각하는 집단을 비만왜곡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신체이미지의 왜곡여부가 명확한 집단의 분류를 위하여 주관적 집단의 7단계 중 “약간 마른체형” “보통” “통통한 체형” 집단을 보통집단으로 묶어 5단계로 분류하였다. 또한 BMI의 비만분류의 단계가 수척단계에

비해 너무 분화되어 있어 객관적 신체이미지 집단도 정상범위(18.6~22.9)와 과체중(23~24.9)을 정상체중집단으로 묶었다. 이것은 분류집단간의 경계에 위치하는 조사대상자를 줄이고 신체이미지 왜곡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집단분류를 위한 본연구의 의도적인 분류임을 밝힌다.

그 결과 자신의 체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상집단은 524(79.3%)명 이었다. 또한 자신의 체형을 실제 체형보다 비만하게 인식하는 비만왜곡집단은 74(11.2%)명, 실제체형 보다 더 마른 것으로 인식하는 수척왜곡 집단은 전체적으로 63(9.5%)명 이었다(〈표 3〉).

이상의 조사에서 집단분류의 경계에 속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20.7%의 여고생이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척 또는 비만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 대상자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비만왜곡만이 많을 것이라는 사전 예상과 달리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 중 비만왜곡 집단 뿐만 아니라 수척왜곡집단의 비율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고생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아직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주는 것으로 성인기 여성의 체형인식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각적신체이미지의 왜곡현상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표 3〉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분류

구 분	신체이미지 왜곡집단	수척왜곡집단 주관적 신체이미지 \wedge 객관적 신체 이미지	정상집단 주관적 신체이미지 = 객관적 신체 이미지	비만왜곡집단 주관적 신체이미지 > 객관적 신체 이미지	합 계
	명 (%)		63 (9.5)	524 (79.3)	74 (11.2)

〈표 4〉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교복변형행동에 대한 인식

명(%)

내용	신체이미지 왜곡집단			전체	
	수척왜곡 63(9.5)	정상 524(79.3)	비만왜곡 74(11.2)		
찬성	개성있는 스타일을 연출을 위해 변형할 수 있다	19(3.0)	145(23.1)	20(3.2)	184(29.3)
	교복도 유행에 맞게 변형 할 수 있다	20(3.2)	148(23.5)	25(4.0)	193(30.8)
	교복사이즈가 맞지 않은 경우 변형할 수 있다	20(3.2)	205(32.6)	26(4.1)	250(39.9)
소 계			562(85.0)		
반대	학생이라는 신분상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0(0.0)	1(3.1)	1(3.1)	2(6.5)
	일상의 활동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2(6.3)	16(50.0)	0(0.0)	17(54.8)
	몸의 곡선이 너무 드러나 단정하지 못하므로 반대한다	2(6.3)	9(28.0)	1(3.1)	12(3.7)
소 계			99(15.0)		

* $p < .05$.

보다 신경성 섭식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위의 조사 결과는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의 형성을 위해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여고생의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교복변형 행동

1)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교복변형인식 및 경험의 차이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교복변형에 대한 인식, 경험 및 변형부위의 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여고생의 교복변형 행동에 대한 인식(표 4)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629(95.3%)명이 교복변형에 찬성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교복사이즈가 맞지 않은 경우 변형할 수 있다”, “교복도 유행에 맞게 변형 할 수 있다”, “개성있는 스타일을 연출을 위해 변형할 수 있다”의 순서였다.

반대는 조사대상자 중 32(4.7%)명뿐 이었는데 “일상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의 이유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일상의 활동성 저해와 몸의 곡선이 너무 드러나 단정치 못해 반대한다”였다. 그리고 교복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신분 상징성은 그다지 교복변형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숙 외(2002)의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의 교복변형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의 선호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정숙함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밝힌 바와 일맥상통한다.

여고생의 교복변형행동에 대한 경험(표 5)을 살펴보면 조

〈표 5〉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교복변형행동에 대한 경험

명(%)

내용	신체이미지 왜곡집단			전체	
	수척왜곡 63(9.5)	정상 524(79.3)	비만왜곡 74(11.2)		
경험有	치수가 잘 맞지 않아서	17(3.0)	162(28.9)	24(4.3)	203(36.1)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9)	54(9.6)	8(1.4)	67(11.9)
	체형을 아름답게 보완하기 위해	16(2.9)	129(22.8)	16(2.9)	161(28.7)
	유행을 반영하기 위해	6(1.1)	57(10.2)	8(1.4)	71(12.6)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8(1.4)	47(8.4)	5(.9)	60(10.7)
소 계			562(85.0)		
경험無	치수가 잘 맞으므로	4(4.0)	17(7.2)	0(.0)	21(21.2)
	번거로워서	6(6.0)	27(27.3)	6(6.0)	39(39.4)
	신체적 활동이 불편해질 것 같아서	0(.0)	8(8.1)	3(3.0)	11(11.1)
	학교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2(2.0)	26(26.3)	0(.0)	28(28.3)
소 계			99(15.0)		

〈표 6〉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교복변형부위 수의 차이

	수척왜곡집단 63(9.5)	정상집단 524(79.3)	비만왜곡집단 74(11.2)	F-value	명(%)
교복디자인 변형부위 수	2.60(1.96)	2.49(1.78)	2.59(1.64)	2.07	

사대상자 562(85.0%)명이 교복변형의 경험이 있으며 99(15.0%)명이 교복변형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변형은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교복디자인을 변형한 이유로는 “체형을 아름답게 보완하기 위해”의 이유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치수가 맞지 않아서”의 이유였다.

교복변형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번거로워서”와 “학교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컸다. 학교규제의 영향력이 전제조사대상자 중 28(4.2%)명으로 학교 규제의 영향력이 교복변형행동에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교복변형에 대한 생활지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의 일방적인 외모관리 규제보다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생활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곡 집단에 따른 교복변형부위의 수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는 여고생이 신체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교복변형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교복변형이 자신의 체형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반영하기보다 다른 이유로 여고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신체이미지 왜곡현상으로 인한 신체불만족을 보완하기 위해 교복변형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교복변

형의 직접적 원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석해 볼 때 지각적 신체이미지보다는 교복태도 및 의복태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애란 외(1999)은 교복변형 행동에 교복선호도 요인과 의복 지속성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애경 외(2006)도 청소년의 의복관심도가 교복변형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교복변형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복의 개성표현, 유행추구, 치수의 다양화를 통한 안락감 증진 등 교복의 디자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부위별 변형 차이

신체이미지 왜곡집단 간에 교복디자인의 부위별 변형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늘이기보다 줄이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교복디자인이 여유분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의의 길이부분과 하의의 스커트 밑단둘레부분($p < .05$)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수척왜곡집단에 비해 상의길이와 하의 밑단둘레를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의 실제체형에 비해 수척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보다는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강한 추구가 반영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고생들의 교복변형행동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복변형의 유형 또한 학생간의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동질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체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복변형행동은 오히려 변

〈표 7〉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부위별 변형차이

변형부위	신체이미지 왜곡집단	수척왜곡집단 63(9.5%)	정상집단 524(79.3%)	비만왜곡집단 74(11.2%)	F-value	M(SD)
상의	목둘레	3.15(.48)	3.07(.35)	3.08(.27)	1.484	
	길이	3.46(.62)	3.35(.60)	3.19(.51)	3.811*	
			B	A		
	어깨폭	3.19(.56)	3.19(.48)	3.12(.46)	.813	
	폼	3.32(.59)	3.32(.58)	3.16(.37)	2.601	
	소매통	3.24(.53)	3.18(.44)	3.15(.39)	.735	
하의	소매길이	3.21(.44)	3.16(.44)	3.14(.45)	.436	
	허리둘레	3.38(.63)	3.42(.63)	3.27(.53)	2.094	
	허리둘레	3.38(.58)	3.41(.59)	3.31(.59)	.890	
	엉덩이둘레	3.22(.66)	3.20(.49)	3.08(.36)	1.951	
	길이	3.92(.68)	3.87(.70)	3.81(.56)	.446	
	폭	3.36(.68)	3.35(.59)	3.31(.52)	.200	
밑단둘레	주름잡기	3.30(.73)	3.22(.49)	3.17(.42)	1.061	
	밑단둘레	3.38(.71)	3.28(.54)	3.15(.36)	3.275*	
		B	AB	A		

A, AB, B : Duncan grouping

* $p < .05$.

〈표 8〉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디자인변형 이후의 교복만족도 차이

M(SD)

변형부위	신체이미지 왜곡집단	수척왜곡집단 63(9.5%)	정상집단 524(79.3%)	비만왜곡집단 74(11.2%)	F-value
디자인변형이후 교복만족도		3.75(.66)	3.56(.70)	3.51(.76)	1.716

형 이전보다 의복압이 강하게 작용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술·가정 교과과의 의생활 단원을 통해 의복의 표현 기능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심미적인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변형이후의 교복만족도 차이

신체이미지의 왜곡집단에 따른 교복변형의 만족도 차이도 〈표 8〉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변형의 만족도는 모든 집단에서 보통이상의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여고생들은 신체이미지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교복변형행동이라는 독특한 그들만의 의복행동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현상과 교복변형행동차이를 알아본 결과 교복변형행동은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현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 여부가 교복변형행동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 여고생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의복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복변형의 목적과 교복변형행동의 만족도에서 여고생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체형의 아름다움이지만, 실제 교복변형 유형이 일률적인 스타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볼 때 교복변형행동에 있어 자신의 체형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여고생의 태도적신체이미지인 신체만족도 유형분류

다음으로 태도적신체이미지인 신체만족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체만족도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한 22문항에 대하여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았다.

요인 1은 허리, 배, 몸무게, 팔, 전체실루엣 등 비만과 관련된 전체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실루엣’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종아리, 다리형태, 허벅지, 엉덩이, 발목이 포함되어 ‘하반신’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어깨넓이와 형태가 포함되어 ‘어깨부위’라고 명명하였

〈표 9〉 여고생의 신체만족도 구성요인

구분	항목	요인값	고유치	총변량(%)	누적변량(%)	Cronach α
요인 1. 전체실루엣	허리	.823	3.506	15.937	15.937	.82
	배	.737				
	몸무게	.688				
	팔	.617				
	전체실루엣	.517				
	손목	.457				
요인 2. 하반신	자세	.362	3.145	14.295	30.232	.78
	종아리	.790				
	다리형태	.771				
	허벅지	.740				
	엉덩이둘레	.605				
요인 3. 어깨부위	엉덩이형태	.595	2.024	9.200	39.432	.81
	발목	.477				
요인 4. 머리부위	어깨넓이	.843	1.949	8.857	48.289	.71
	어깨형태	.835				
	두상	.833				
요인 5. 가슴부위	얼굴	.819	1.942	8.827	57.117	.63
	목	.537				
요인 6. 길이	가슴둘레	.922	1.782	8.101	65.217	.67
	가슴형태	.917				
	키	.810				
	다리길이	.705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표 10〉 신체만족도에 따른 군집유형 분류

신체만족도 요인	신체만족도 군집유형	부분만족형 232(35.1%)	전체실루엣만족형 138(20.9%)	불만족형 291(44.0%)	F-value
전체실루엣		-.67626(A)	.56910(C)	.26935(B)	114.914***
하반신		.50536(C)	-.74253(A)	-.05037(B)	84.801***
어깨부위		.44629(C)	-.09349(B)	-.31194(A)	42.248***
머리부위		.24516(B)	.21090(B)	-.29611(A)	24.186***
가슴부위		-.00656(B)	-.37019(A)	.18134(B)	14.720***
길이		.20383(B)	.93167(C)	-.60597(A)	181.903***

〈표 11〉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른 교복변형부위 수의 차이

변형빈도	신체만족도 군집유형	부분만족형 232(35.1%)	전체실루엣만족형 138(20.9%)	불만족형 291(44.0%)	F-value
교복디자인 변형부위수		2.13(1.85)	2.46(1.97)	2.26(1.90)	1.343

다. 요인 4는 두상, 얼굴, 목이 포함되어 '머리부위' 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가슴둘레와 형태가 포함되어 '가슴부위' 라고 명명하였다. 끝으로 요인 6은 키와 다리길이가 포함되어 '길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까지의 총 설명력은 65.22%였으며 0.63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군집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을 변수로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군집수를 3으로 하여 유형을 분류한 결과 모든 신체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군집 1은 비만과 관련된 전체실루엣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며 하반신과 어깨, 머리, 가슴부위는 다른 군집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유형이라 "부분만족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비만과 관련된 전체실루엣, 머리부위, 길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하반신, 가슴부위의 만족도는 낮은 유형이어서 "전체실루엣 만족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가슴부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부위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유형이라 "불만족형"이라 명명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여고생의 신체만족도 유형분류에 있어 전체실루엣의 만족도와 각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고생들은 전체적인 실루엣 만족하더라도 하반신, 가슴부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전체적으로 불만족하더라도 하반신, 어깨, 머리, 가슴부위 등 각 부위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4. 여고생의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른 교복변형

1)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른 교복변형부위 수

신체만족도 군집유형에 따른 교복변형부위의 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이는 여고생이 신체만족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교복변형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교복변형이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의 차이를 반영하기보다 다른 이유로 여고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다.

2)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부위별 변형 차이

신체만족도의 군집유형에 따라 교복디자인의 부위별 변형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는 〈표 12〉와 같았다. 군집유형에 따라 상의의 '허리둘레' ($p < .05$)와 하의의 '밑단' ($p < .01$)의 줄이는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허리가 포함된 전체실루엣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하반신의 만족도는 높은 유형인 "부분 만족형"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상의의 허리둘레와 하의의 밑단을 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실루엣에 대한 만족도는 높는데 하반신이 다른 군집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전체실루엣 만족형"은 상의의 허리둘레와 하의 밑단을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은 신체만족도가 높은 상의의 허리부위도 많이 줄이고 반대로 하반신의 만족도가 낮음에도 스커트 밑단을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고생들은 교복디자인의 변형을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 있는 몸매를 과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는 신체부위를 부각하기 위해 교복변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른 디자인변형 이후의 교복만족도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른 디자인변형 이후의 교복만족도의 결과는 〈표 13〉과 같이 군집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p < .05$)를 나타냈다. "전체실루엣 만족형"의 경우 다른

〈표 12〉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부위별 변형차이

M(SD)

변형빈도	신체만족도 군집유형	부분만족형 232(35.1%)	전체실루엣만족형 138(20.9%)	불만족형 291(44.0%)	F-value
상의	목둘레	3.05(.34)	3.12(.37)	3.09(.36)	1.804
	길이	3.32(.58)	3.35(.55)	3.37(.63)	.441
	어깨폭	3.14(.45)	3.18(.52)	3.22(.49)	1.500
	폼	3.29(.56)	3.29(.56)	3.31(.56)	.092
	소매통	3.16(.45)	3.19(.45)	3.18(.43)	.240
	소매길이	3.14(.44)	3.17(.39)	3.19(.47)	.867
	허리둘레	3.32(.59)	3.49(.66)	3.42(.61)	3.501*
하의	허리둘레	3.34(.56)	3.46(.65)	3.40(.59)	2.023
	엉덩이둘레	3.19(.45)	3.16(.58)	3.19(.48)	.104
	길이	3.85(.64)	3.89(.75)	3.87(.69)	.105
	폭	3.35(.54)	3.35(.67)	3.34(.58)	.016
	주름잡기	3.18(.44)	3.20(.53)	3.26(.54)	1.728
	밑단둘레	3.18(.44)	3.33(.60)	3.33(.54)	5.526**
		A	B	B	

A, AB, B : Duncan grouping

* $p < .05$. ** $p < .01$.

〈표 13〉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른 디자인변형 이후의 교복만족도 차이

변형빈도	신체만족도 군집유형	부분만족형 232(35.1%)	전체실루엣만족형 138(20.9%)	불만족형 291(44.0%)	F-value
디자인변형이후 교복만족도		3.57(.70)	3.82(.74)	3.56(.70)	2.956*

* $p < .05$.

집단에 비해 디자인변형 이후의 교복만족도가 더 높았다. 앞의 결과(〈표 12〉)와 상관시켜 살펴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상의의 허리둘레와 스커트 밑단을 더 많이 줄이는 경우 덜 줄이는 경우보다 변형 후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신체만족도는 교복디자인 변형과 규칙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교복변형행동이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교복변형 행동이 신체만족도보다 여고생들의 일반적인 의복태도를 반영한 독특한 현상의 하나이며, 그 유형이 짧고 밀착된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대중패션이 여고생의 심미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빈주은(1999) 등의 선행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유행의복 선택행동은 성별과 체격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들의 교복변형행동이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현상 및 태도적신체이미지인 신체만족도에 따

른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여고생들의 올바른 교복착용을 위한 생활지도와 기술·가정 교과과의 의복관련 단원의 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중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척 또는 비만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20.7%로 나타나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체이미지 왜곡집단 중 비만왜곡집단뿐만 아니라 수척 왜곡집단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여고생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신체이미지 왜곡집단에 따른 교복변형에 대한 인식, 변형경험, 변형목적, 변형이후 교복만족도 등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신체이미지 왜곡여부가 교복변형행동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85.0%의 여고생이 교복변형행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때 교복변형 행동은 여고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의복현상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복변형의 목적이 체형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객관적인 체형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체만족도의 구성요인은 전체실루엣, 하반신, 머리 부위, 어깨부위, 가슴부위, 길이의 6요인이었으며, 분류된 3 유형의 특징은 전체실루엣의 만족도가 높고 신체 각 부분의 만족도가 낮은 유형, 전체실루엣의 만족도가 낮으나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가 높은 유형, 그리고 가슴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위에서 불만족한 유형이었다.

넷째,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른 교복변형부위 수와 변형부위, 변형이후 교복만족도 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만족도 유형에 따라 교복디자인 변형부위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일괄적이지 않아 신체만족도 요인이 교복변형과 관련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고생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교복 변형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들의 신체이미지 왜곡현상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아 심리적, 신체적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 이미지 왜곡현상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욱이 신체이미지는 성격 형성의 핵심요소이자 긍정적 자존감을 고양시켜,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도기적 성향의 청소년기에 올바른 신체이미지 정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고생들 지각적신체이미지 왜곡집단별 교복변형행동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고생들은 신체 이미지 왜곡 및 신체불만족을 보완하기 위해 교복변형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복변형의 목적이 체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교복변형행동은 이상적인 체형을 반영하고자 하는 독특한 유행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가정 교과과의 의생활 단원을 통해 의복표현 기능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심미적인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고생들의 교복변형이 신체이미지와 관계없이 유행현상을 반영하는 교복변형이라고 볼 때 여고생의 유행을 보는 관점교육과 교복에 대한 개념정리가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복변형이라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자기 표현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을 광주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타 지역이나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여고생들의 동조적인 교복행동과 체형에 대한 인식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고애란, 김양진, 심정은(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3, 13-41.

김혜정(2001).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지영, 박주아, 신미란, 홍수연, 홍지연, 황정민(1999). 여고생의 교복변형 행동과 교복태도, 의복태도 및 심리적 특성의 관련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3, 31-41.

박영애(1997). 교복디자인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여학생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지현(2007).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0(3), 75-85.

빈주은(1999). 청소년기의 성과 체격 조건에 따른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이즈코리아(2007.9.15).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from <http://sizekorea.ats.go.kr>.

성영신, 박은아, 우석봉(1999). 광고에 나타난 신체가치관 연구. **광고연구** 43, 29-55.

송경자(1999). 신체이미지·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태도적·지각적 신체이미지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위은하(2006). 남·여 중학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 비교연구-광주시내 남·여공학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19~131.

유경숙(1992). 여고생의 교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외류학회지**, 15(3), 263-270.

이미숙(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상진, 정옥분(1999).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1), 73-87.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외류학회지**, 21(2), 383-395.

이소은(2001). 남녀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시내남녀공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애경, 한영숙, 이해자(2006).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교복만족

- 족도 및 교복변형행동.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3), 133-148.
- 이인자(1992). 교복착용여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85-96.
- 이혜경(1999). 교복 변형실태와 교복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주(2006). 남자 중, 고등학생의 교복 치수 맞춤새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4(1), 48-63.
- 정추량(1967). **이화 80년사**. 서울: 이대 출판부.
- 정현주, 목혜은, 한유정(2002). 우리옷 교복 착용 여고생의 교복 만족도와 의복 행동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6(5), 654-662.
- 정혜경, 김세희(2004).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행동에 관한 연구:경상남도 마산,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1), 135-150.
- 한국일보(2001.5.9.) 교복 공동구매 바람 거세다.
- 한준상, 이춘화, 윤옥경(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3-226.
- 황진숙, 안명화, 용유진, 유승연(200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3), 243-247.
- Cash, T. F.(1990). The psychology of physical appearance: Aesthetics, attitudes, and images. In T.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pp. 51-71) NY: Guilford Press.
- Moschis, G. P.(1987). Teenagers responses to retailing stimulus. *Journal of Relating*, 21(8), 482-484.
- Rudd. N. A., & Lennon S. J.(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152-162.
- Thompson, J. K.(1990).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접 수 일 : 2009년 7월 3일

심사시작일 : 2009년 7월 3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0월 19일